

미국 극단 치키 원스의 '무니'



광주연극협회, 27일~10월 11일
아시아문화전당·빛고을시민문화관
그리스·美·中 등 4개 팀 해외 초청
공모 10개팀 등 19개 공연...전석 무료



중국 극단 황매희예술극원의 '설랑귀'



조주희 작 '마음 짓다'

청년작가들의 '그리움'

나수빈·박진아·조주희·성혜림... 드영미술관 10월6일까지

올 한해 지역 청년작가들을 초청해 '소소한 이야기'를 주제로 2019년 청년작가 릴레이 기획전을 열고 있는 광주 드영미술관이 네 번째 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 주제는 '그리움'으로 나수빈·박진아·조주희 작가를 초청해 오는 10월 6일까지 전시를 진행한다. 박진아 작가는 전통 민화의 감성을 현대적 느낌으로 재해석한 흥미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나수빈 작가는 화려한 색감과 형태가 어우러진 작품을 전시한다. 마지막 다섯번째 기획전은 '풍경'을 주제로 열리며 박성환·고차분·이태희·최나래 작가를 초청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찬희 작 'color pencil'

5인의 작가 'Day of'

화순 다산미술관, 28일까지 지역작가 발굴전

화순 다산미술관이 지역 작가 발굴전을 오는 28일까지 개최한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 5명을 초청한 이번 전시 주제는 'Day of'로 5인의 작가는 각각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시선을 통해 그들의 날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자신들의 언어로 각자의 작품을 표현해냈다. 구혜령 작가는 디지털 이미지의 픽셀을 이용해 전통 초상화인 '모나리자'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이미지를 차용한 유화작품을 선보이며 박찬희 작가는 유년 시절 가장 아끼던 'color pencil'을 통해 그 시절 생각과 꿈을 표현했다. 박찬희 작가는 네덜란드의 바로크 정물화 바니타스를 떠오르게 하는 작품을 통해 성인인 된 이후 사회 속의 자신과 그 속에서의 이질감에 대해 표현하며 오윤지 작가는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음성기호인 '말'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신체 부위 중 입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밖에 전미리 작가는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 중 하나인 '사과'를 통해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망과 감정을 보여준다. 매주 토요일 작품연계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평화의 무대에서 '공감'을 나누다

'제15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개최된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원광연)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의 올해 주제는 '공감'. 상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전쟁, 기아, 통일 등 평화와 인권 문제를 짚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리스, 미국, 중국 등 4개 팀의 해외 초청 공연, 전국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팀의 단막극 공연과 함께 초청 공연, 심리극 등 19개 작품이 공연된다. 해외 극단 무대는 ACC 예술극장에서 펼쳐진다. 27일과 28일 예술극장1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에서는 그리스 극단 '코스타스 각기스 앙상블'이 개의 관점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자신의 이름을 지킨 개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10월 8-11일 예술극장2에서는 중국, 미국 극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중국 '황매희예술극원'은 부귀영화와 인생의 덧없음, 평생을 함께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육전선', 가난하고 벼슬 꿈에만 빠져있었다며 이혼했던 전 남편이 금의환향하는 이야기가 담긴 '설랑귀' (10월 8일)를 공연한다. 심리치료사이자 뮤지션인 유리와 음악 파트너이자 환자인 테드가 서로를 위로하는 이야기를 담은 미국 '더 러브 블루프 쓰리'의 'I love you' (10월 10일), 열광과 몽상만을 이야기하는 남편과 가정을 지

키려는 아내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치키 원스'의 '무니' (10월 11일)도 만나볼 수 있다. 단막극 공연은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ACC 예술극장1에서 펼쳐진다. 자살한 3명이 좁은 공간에 갇혀 탈출을 도모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극단 열아리의 '그들만의 사회화' (29일), 아리엘 도르프만이 인권 운동가를 인터뷰 한 책 '진실을 외쳐라-세상을 바꿔가는 인권운동가들'을 희곡화한 극단 종이로 만든 배의 '양인대화' (29일)가 무대에 오른다. 이어 남북 청소년의 러브 스토리가 담긴 박종우 청소년작작소의 '너에게 간다' (10월 1일), 자살한 'Y'의 생애 마지막 조각들을 들여다보는 청춘나비의 'KNOCK! KNOCK!' (10월 1일)이 공연된다. 철학극장은 공감과 환대의 태도를 고민하는 '부재중인 방' (10월 2일)을, 극단 바람꽃은 연극 연습 과정에서의 사랑과 가족에 등을 다룬 '부러진 날개로 날다' (10월 2일)를 선보인다. 임진왜란 당시 한 부부의 사랑과 이별을 담은 극단 사랑의 '꽃처럼 바람처럼' (10월 3일), 여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심리를 비판하는 극단 척의 '재단' (10월 3일), 다시는 태

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옥균의 삶을 다룬 극단 좋은친구들의 '마옥균 퀴즈쇼' (10월 4일), 공감의 발생과 변질을 분석하는 극단 9의 '위험한 커브' (10월 4일)도 만나볼 수 있다. 대회에서 평화상을 받는 팀은 창작지원금과 함께 '제16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에 초청된다. 이밖에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지난해 단막극 공연에서 평화상을 차지한 상상공터의 '빠알간 게르니카' (10월 4일), 제주 지역 단체인 퍼포먼스단 몸짓의 '주부들의 이야기-지지고 볶고' (10월 5일), 엔카운터의 '심리극' (10월 6일), 연우랑의 주제공연 '그와 나' (10월 9일)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석 무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윤성근 바이올린 독주회, 26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사진)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로스톡 국립음대 등 문화가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유쾌한 바이올린 선율과 피아노의 교차 연주로 근대적 피아노의 시작을 알린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8번', 열기가 시골

의 풍광에 감명받아 쓴 곡 '바이올린 소나타'를 무대에 올린다. 이어 '악마가 꿈에 나와 들려 준 선율을 옮겨적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복잡하고 화려한 기교로 잘 알려진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악마의 트



극단 좋은 친구들의 '마옥균 퀴즈쇼'



릴'을 연주한다. 이날은 연세대학교, 인천예고에 출강중인 피아니스트 강혜령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윤성근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디플롬을, 로스톡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졸업했으며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악장 등으로 활동했다. 국립목포대, 세한대, 전남예고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광주챔버오케스트라 리더로 활동 중이다. 전석 2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INCE 1982 국제보청기...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BELTONE, CES, BIG INNOVATION AWARDS... 062) 227-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062 673 5858 (모발모발)